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

6월 29일까지 원화 전시·공연·체험·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누구나 그림책을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도서전시회가 책의 도시 전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2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이하 그림책도서전)의 개막식을 가졌다.

'마법(Magic)'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도서전은 개막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원화 전시가 이어지며 1일까지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원화 전시에 참여한 사라 룬드베리와 키티 크라우더,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인 백희나 작가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스웨덴의 대사관 관계자와 출판사 대표들도 초청돼 양국 간 그림책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그림책도서전의 중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북마켓은 보림출판사와 사계절, 문학동네, 창비 등 국내 유수의



전주시는 2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의 개막식을 가졌다.

그림책 출판사 22개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에서 운영된다.

각 출판사 부스에서는 그림책 전시와 함께 △도서 10% 할인 판매 △작가 사진회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총 6회의 작가강연과 8회의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서현 작가의 '초록의 마법 「풀밭레그람프」 강연을 비롯해 스웨덴의 대표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초청 작가 키티 크라우더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여기에 박병주 작가의 1인극 '마법'의 방귀 파워 뽐 , 드로잉 워크숍, 종이 인형극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해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도서전에서는 원화전시는 물론, '아트마켓'과 '시작·작가전', '디퓨투스 그림책 100선' 등 주요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도서를 구매하면 스탬프를 모아 쿠폰 뽑기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물로 증정되는 쿠폰에는 이수지 작가의 대표 이미지가 담겨 있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도서전은 스웨덴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국내 그림책의 가능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책을 넘어 콘텐츠 산업으로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 전시의 경우 팔복예술공장에서는 백희나 작가와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며, 완산도서관에서는 에바 린드스트름 작가와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확산

전주시복지재단, 온도플러스 지원 선정 기관 사업비 전달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9일 오후 새롭게 추진하는 '2025년도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복지 문제 해결과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며 재단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에 총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선정기관을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웃사랑 공동체에는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과 평화사회복지관이 선정됐다.

또 전주다시서기기지원센터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 역량강화 공동체로, 여명노인복지센터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생활지원 공동체로 각각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다.

각 공동체는 유형별 특화 접근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립 예방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 △생활 교류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모델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각각의 장점과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3년간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후, 총괄감독 산업과 민관협력지원단 운영,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그간 추진해온 핵심 추진체계 완성에 따라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과 시민 참여 중심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난해 추진된 예비사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는 팔복동 일원을 중심으로 전통과 미래기술이 융합된 미래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해 시민과 예술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또한 시는 '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창출'을 구현할 직업자로 디지털트 분야 선도적 예술가로 평가받는 오영재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총괄감독으로 선임했다.

오영재 교수는 앞으로 팔복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며 콘텐츠 기획과 운영 전략을 이끌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박차

전주시가 삼전동과 서신동 일대의 주거·상업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중섭)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서신동과 삼전2·3동 일원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은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량 저감 및 유수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는 서신동과 삼전2·3동 일원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관로 35km(1공구 5.8km, 2공구 29.2km)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1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착착'

전주시, 시내 노후하수관로 35km 구간 정비 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중섭)는 완산구 안평·평화택지구와 서노송동, 덕진구 팔복동·송천동·조촌동 일원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3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평·평화택지구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 17.4km와 배수설비 560여 개소가 정비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총 5차분 공사 중 3차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7%다.

올해는 안평현대아파트 일원과 안평로 일부 구간, 평화시립도서관 인근 지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시는 서노송동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하수관로 1.2km를 정비하며 최종 5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88%이며, 전주시청과 중앙동 주민센터 인근에 막바지 공사를 거쳐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끝으로 덕진구 일원은 노후 하수관로 15.7km와 비굴작 보수 770여 개소가 정비될 예정으로 현재 총 5차분 공사 중 2차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13%다.

시는 오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는 안골매거리와 전주역,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하수처리 효율을 높

이고, 하수관 내 불명수 유입 저감 및 하수의 지하 유출로 인한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5억 원을 투입해 급압동과 인후동 등에서 덕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2.1km)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총 22억 원을 투입해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2.5km)도 시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하수관로 우·오수관 분리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구강건강 증진

전주시가 지역사회 치과의사들과 함께 운영 중인 구강보건실이 특수학교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주시치과의사회 봉사단체인 '행복한 동행 봉사회' 소속 치과의사들이 매주 목요일 '구강보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

다고 29일 밝혔다.

봉사회 소속 치과의사들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충치 치료와 신경 치료, 유치 및 사탕니 발치 등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비급여 보철치료(크라운 등)를 무료로 지

원하는 등 치과 방문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비는 봉사회와 진료를 맡은 원장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보철치료 등 약 7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철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 구강보건실은 전국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최초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될 예

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행복한 동행 봉사회 소속으로 오랜 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이화준 원장(고은이치과)이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이연숙 원장(남문치과)도 이날 말부터 봉사회 활동에 합류기도 하는 등 봉사 인력이 보강돼 보다 안정적인 고지속적인 진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용현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